

조국의 흥융은 우리 모두의 사명

재미동포에 대한 메시지

1981년 1월 17일

수만리 이역 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와 더불어 고국의 몇 가지 사정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낮설고 물선 타국땅에서 온갖 악조건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실히 살아가며, 또 훌륭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데 대하여 우선 충심으로 경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학생 여러분들도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놀라운 학업성적을 올려 한국인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치하를 보내고자 합니다.

자고로 발전하는 민족은 그 성원의 다수가 해외로 뻗어나가 국위를 선양하며 내국인은 그것을 국가발전의 촉진제로 활용함으로써 국내·국외의 민족성원 전체가 빠짐없이 전진대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둔 발전과 성공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질과 저력을 내외에 입증함으로써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매우 뜻깊고 장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와 같은 발전과 성공이 고국정부의 별다른 지원이나 배려없이 순전히 여러분의 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기회를 빌어 더욱 깊은 경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미동포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을 준 모국 대한민국은 지금 온 국민이 새로운 결의와 불퇴전의 각오를 굳게 가다듬어 새 역사 창조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모든 동포들이 대망하고 있는 제5공화국의 탄생을 향하여 합헌적인 모든 절차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집권을 내용으로 하는 유신헌법은 작년 10월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으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는 새 헌법이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 속에 새 시대의 장전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새 헌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개의 정당들이 이미 창당되었으며, 이들 정당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위하여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민주정의당의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것을 포함하여 여러 당의 대통령후보가 내달 중에 있을 선거채비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의 정당후보의 출현, 그리고 단독출마 아닌 복수경쟁의 현상 등은 우리가 10년만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권결정에 있어서 사실상 경쟁을 허용하지 않았던 70년대의 정치를 이제 완전히 청산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두 차례 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우리의 것으로 확고히 만들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복지와 정의를 알차게 구현하자는 결의를 굳게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발전을 우리 민족의 기여와 역할을 뚜렷하게 하기 위하여 위대한 자주민

주국가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러한 자주민족국가는 민주·복지·정의의 이념을 그 내실로 할 때에만 정당성과 역사성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재미동포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자주민족국가는 통일조국의 실현으로서 참다운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광대한 국토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고국을 돌아볼 때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될 줄 압니다마는 좁은 국토의 허리가 잘려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양상을 36년간이나 계속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 민족의 세기적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은 드넓은 국토에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잘 살고 있는 데도 왜 우리는 좁은 국토에서 같은 민족이 상쟁을 거듭해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민족 자존심의 전지에서 기필코 청산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번영을 위한 통일이 민족의 살상을 수단으로 하여 성취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평화적인 민족통일이야말로 우리의 지상명제인 것입니다.

북한은 여러 방면으로 위장평화공세를 하면서도 무력에 의해 한반도를 적화시키겠다는 기본노선을 더욱 굳혀 놓고 있습니다. 어느쪽 주장이 이기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전민족의 승리라는 차원에서 무력적화통일노선은 기필코 저지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내외의 모든 세력은 일대 민족적 결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평화통일을 외치는 소리가 크고 많을수록 민족이 살상을 노리는 전쟁기도는 움츠러들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가운데 남북이 서로 대화를 나누어 서로의 신뢰를 조성해 나간다면 민족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본인이 지난 1월 12일 북한측에 E하여 쌍방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제의한 것도 바로 평화통일을 위한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평화통일 세력이 결집되어 나의 뜻을 지원한다면 나는 조국통일 달성을 위하여 그 어떠한 어려운 일도 앞장서서 감당할 각오에 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미동포 여러분!

우리가 자주민족국가의 건설을 추진하고 평화통일의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 여러분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관직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어느 공무원보다도 조국을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무관의 외교사절이자 문화사절이며, 여러분들이 선진국에서 익힌 경험과 학문은 우리 민족 전체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의 협조는 조국의 새 시대를 더욱 알차고 빛나게 하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그 동안 별로 해준 것이 없는 고국이 이제와서 여러분들의 공헌을 강조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서운한 감이 없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 동안 고국이 해외동포 여러분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코리안 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져 재미동포 여러분들의 가슴을 한없이 쓰라리게 하고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인의 체모와 긍지에 큰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국의 정치가 갈등과 부패로 얼룩져 동포사회에까지 진통의 여파를 끼쳐왔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들은 새 시대의 이름으로 과감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를 통해 다짐하고자 합니다.

국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동포들은 우리의 형제자매들로서 당연한 배달민족이며, 따라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제5공화국의 발전과 번영에 절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직 나라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운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여러분의 뜻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또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일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날 모국방문이 금지되었던 일부 해외동포들이 조국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모든 재미동포들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임을 본인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재미동포 여러분!

아시아의 동쪽 자그마한 반도에 땅은 좁지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조국이 있습니다. 이 조국을 번영과 흥융으로 인도해 가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있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의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생을 영위하든 우리의 얼굴과 핏줄과 혼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은 변할 수가 없다는 이 진실은 애족심과 애국심도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우리의 충성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 민족은 다민족국가인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무대에서 타민족의 존경과 동경의 대상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